

최초 18분간 화재 인지못해... 외부 화재 감지센서 없어

고양 저유소 폭발 중간 수사결과

경찰, 피의자에 중실화죄 적용
3년이하 금고·2천만원이하 벌금
피해 43억원... 배상 가능성 0%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강신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께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27·스리랑카)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이때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

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A씨와 같이 중실화로 화재 등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류는 지난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 풍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인 A씨가 풍등의 위험성 인지는 물론,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폭발 사고로 인한 향후 재산피해 보상 문제도 막막하다.

이번 화재로 휘발유 260만 l 가 소실되는 등 추정 피해액만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에게 전액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정 여건상 피해 당

사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권 청구 등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이번 피해는 보험사가 대부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보상 문제와 함께 대한송유관공사의 허술한 보안 및 안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유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이 서서히 추락하는 풍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시설 내에 화재 발생 후 폭발까지 18분 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 분야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화재가 아닌 바람에 날린 불씨가 유증기 배출구로 들어가 폭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 설비만 갖춰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저유소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 발생 시 이번과 동일한 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태다. /경기 고양=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미세먼지 처리장치 엉터리 시공업체 적발

서울 민사단, 8곳서 8명 불구속 입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않고 불법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설계·시공한 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저 신고한 자동차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 도장작업 때 발생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제거하는 미세먼지처리장치를 부적절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대여를 받아 공사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

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와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일부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조립하다 고발된 업체를 확인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진행됐다.

시 민사단은 올해 2월부터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왔다.

A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해 거저 신고를 하는 등 9차

례에 걸쳐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B업체는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 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정 기자 hjk1@

판교에 공공임대주택 300가구 들어선다

경기도·경기도시공, 2020년 입주

경기도 판교에 3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돼 이 지역 청년 노동자와 창업가의 주거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 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과 지역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로 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

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17년말 기준 1,270개 입주기업, 매출액 79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의 R&D단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6만3000여명의 66.8%인 약 4만2000여명이 젊은 층이어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청년노동자나 창업자의 주거와 교통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2년까지 경기도에 장기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6만 세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행복주택 기공식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로7017서 야외형 탈출게임 즐겨요"

오늘부터 '시티 오브 러브: 서울'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서울로7017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ICT 기반의 야외형 탈출게임 '시티 오브 러브: 서울'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실내에서 즐기는 방탈출 게임을 야외의 개방된 장소인 서울로7017에서 어드벤처형으로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은 ▲커플을 위한 '편지' ▲힐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처방전' ▲두뇌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위한 '소원' 등 총 3개 테마로 이뤄져 있다. 3개 프로그램은 10일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미션이 적힌 게임키트를 현장에서 수령해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게임 참가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게임키트를 들고 지역에 따라 서울로 7017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는 숨겨진 단서를 찾아 문제를 풀며 남은 이야기를 완성시켜야 한다. 결



'시티 오브 러브: 서울' 홍보 포스터. /서울시

과는 각 테마별로 다르다.

미션을 완수한 사람에게는 약현성당, 남대문 등 서울로7017 주변 추천 관광지 정보와 인근 카페, 와인바, 피자가게, 맥주집,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앱을 통해 제공된다.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에어비앤비'는 3000, 5000, 10000번째 미션을 완수한 관광객에게 30만원 숙박상품권을 증정한다. 우수체험 후기 작성자에게는 3~30만원 상당의 숙박상품권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폐염전에 31억 투입 '자연마당' 조성

인천시, 휴식공간 등 2020년 완료

인천시는 인천내륙지역에 남아있는 최후의 폐염전 지역인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자연마당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원 내 습지와 그 주변 일원 50,000㎡에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3년간(2018년~2020년) 총 30억9000만원을 투자해 2020년 완료할 예정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과거 1970년대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던 곳이었으나 소금생산 중단과 토지이용 변화 이후 지속적인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해수 유입 중단으로 염생식물군락의 면

적 감소로 도요류, 물떼새, 저어새 등의 서식지 감소 및 생태적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시는 자연마당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내 갯벌과 염생식물을 복원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 제공과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도시 인천만의 고유성을 느낄 수 있는 시민체험의 기회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안상윤 인천대공원 사업소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인천의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다양한 해양생태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래포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